여야, 한달간 '예산전쟁' 돌입…법정시한 준수할까

〈12월 2일〉

與 "경제예산 지키기 총력" 野 "박근혜표 예산 깎겠다"

이정현·황주홍, 예결위 예산안 조정소위 위원에 선정

여야의 '예산전쟁'이 30일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의 첫 적용으로 12월1일에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만큼,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준수를 놓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치열할 전망이다.

하지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은 아직 예산소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게다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확장예산 편성 방침에 맞서 야당은 "서민증세는 막고 '박근혜표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겠다"고 맞서는 상황이어서 심사가 본격화하면 여야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올해는 반드시 법을 준수,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전날 시정연설에서 법정 기일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한 데 이어 여야 지도부와 회동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정해진 날짜 안에 통과시켜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8조3000억원 등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을 지켜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까지 한결같이 주장한 '서민 증세, 부자 감세' 철회를 관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서도 담뱃세를 비롯한 주민세, 자동차세 증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창조경제 사업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중점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소정소위)에서 활동할 위원 15명의 명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새누리당에서 예결위원장인 홍문표 의원, 예결위 간사인 이학재 의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이정현·이한성·김도읍·김희국·윤영석·이현재 의원까지 총 8명이 소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예결위 간사인 이춘석 의원과 함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김현미·민병두·박완주·송호창·황주홍·홍의락 의원까지 총 7명이 소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예결특위는 다음달 6~7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질의를 벌인다. 이어 10~13일 부별 심사를 거쳐 16일부터 예산안 심사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의

김동철·이정현·박혜자 의원

정치·교육사회분야 질문자로

김동철 의원

이정현 의원

박혜자 의원

국회는 31일부터 11월5일까지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31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1월 3일에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월 4일에는 경제 분야, 11월 5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이 각각 실시된다.

이번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새누리당 24명, 새정치민주연합 20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2명 등 의제별로 12명씩 총 48명의 의원들이 나선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새정치연합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을)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정치 분야에, 새정치연합 박혜자 의원(광주 서구 갑)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한편 31일과 다음달 3일에는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공무원연금개혁 긴급 좌담회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주최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안 진단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공적연금제도의 기본 개념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경북 '동서화합포럼' 내달 4일 간담회…국회의원·단체장 등 83명 총출동

주요 현안사업 '상생예산 확보' 머리 맞댄다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들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의원들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8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여 두 지역의 내년도 예산안 등 현안을 점검한다.

동서화합포럼 공동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과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다음 달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오찬을 겸한 '전남·경북 현안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호남 갈등을 종식하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상생과 발전의 성과를 이뤄가자는 취지로 작년 말 결성된 동서화합포럼은 지난 1월과 3월 고(故) 김대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차례로 방문한 바 있다.

다음달 4일 열리는 포럼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6명에다가 전남·경북 지역의 도지사, 정무부지사, 도의회의장 및 전남·경북 지역의 시장·군수 45명 전원이 총출동하는 등 총 8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들은 전남도와 경북도로부터 내년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남에서는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등이, 경북에서는 중소기업 창조기반구축 사업,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등이 주요 예산 사업으로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상생 협력 과제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당수의 자치단체장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이날 상견례를 갖고 동서 간의 상생을 다짐하는 의미도 있다.

포럼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고 예산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서로가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해 갈 것"이라며 "특히, 전남과 경북이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방정가

'인문학도시 광주' 정책토론회

광주시의회는 30일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인문학 도시 광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남대 철학과 박구용 교수가 기조발제를 하고 인문학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지역 내 인문학 관련 실태 진단과 인문학 진흥 방안을 모색했다.

박구용 교수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는 지역과 마을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모임과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지자체는 직접적 주체가 되기보다는 자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보현 의원은 "지역 내 인문학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 차원에서 토론회를 준비했고, 앞으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시의회 산건위 '식량주권' 간담회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민종)는 30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국 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식량주권 사수 및 먹거리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민종 위원장을 비롯한 반재신, 이미옥, 조세철 의원 등 산건위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쌀 수입 전면 개방에 따른 식량주권 사수 및 먹거리 안전'을 주제로 우리나라 쌀 수입 전면 개방과정의 문제점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상 때 주도적 협상을 통해 개방을 준비한 필리핀, 인도 등의 사례를 분석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 시당, 지방의원 예산 교육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다음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 21명·기초의원 56명)을 대상으로 31일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전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의원 상호 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생산적인 의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초선의원들을 위해 재선·3선 의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행정사무감사 경험과 노하우 등을 알리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김용석 서울시의원의 '나도 BEST 지방의원'이라는 주제의 강의도 이뤄진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015학년도 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에서 21세기 글로벌 엔지니어 리더에 도전하십시오!!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無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입학원서 작성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우편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창구	2014. 11. 7.(금) ~ 2014. 11. 21.(금) 09 : 00~18 : 00
전 형 일		2014. 12. 3.(수) 10 : 00~
합 격 자 발 표		2014. 12. 18.(목) 11 : 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20명) : 전자컴퓨터공학
문의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 //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 통증 의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새롬행정고시학원 www.gjserom.com http://cafe.daum.net/gj8111
새롬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광주본원 서구청앞 361-8111
전국 최대 규모의 프랜차이즈 학원 새롬행정고시학원
전/국/최/강 새롬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민법·백헌 학개론·임진택 공법·이강열 중개법·홍덕기 공시법·안규채 세법·임기원
개강 11月10日 주 부 반 11月~12月 기초과정 전 과목 강의 합니다. 성 인 반 직장인반 인터넷 동영상 수업은 무료
합격률 1위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잘하는 학원 1위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력 1위
"새롬" 전국 수석합격자 3명 배출
합격을 위한 새롬만의 차별화된 시스템!!
■기초과정 → 11月 ~ 12月
■기본서Ⅰ → 1月 ~ 2月
■기본서Ⅱ → 3月 ~ 4月
■기본서Ⅲ → 5月 ~ 6月
■문제풀이 → 7月 ~ 8月
■총정리 → 9月 ~ 10月
·휴일 1일은 정규 개강일 입니다.
합격을 위한 책임강의! 모르면 알때까지!
광주새롬학원에서 제15회~제24회 시험까지 2000여명 합격자 배출!
직업 상담사 특강 (주·야)
·학원 홈페이지 한글주소 검색: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학원카페 다음카페 검색창: 광주새롬행정고시학원
새롬 행정고시학원 광주본원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2층 ☎361-8111

K Petro 한국석유관리원
공공기관 매매

● 위 치 | 광주 광산구 도산동 1114
● 건 물 | 1,657㎡(3층)
● 토 지 | 2,076㎡
● 활용용도 | 요양원, 복지관, 유치원, 사무실
● 매 매 가 | 15억 6백 6십만원
☎ (062) 940-0612
010-4662-4313